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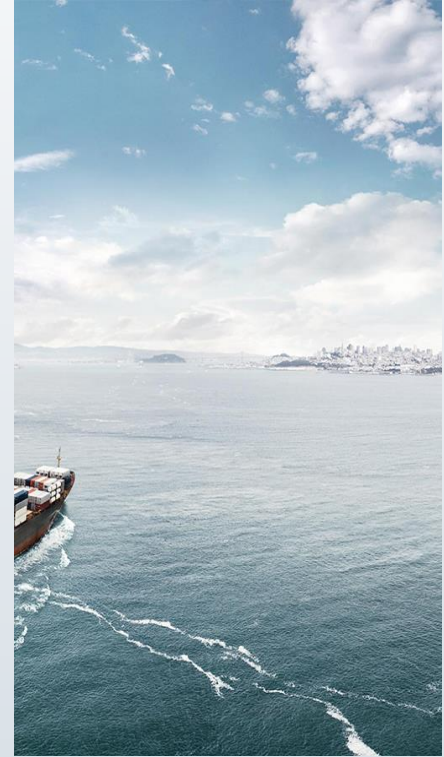


# STL MARKET REPORT

## Weekly Focus No.473

**October 10, 2023**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 Contents

News	1
Bulk Carrier	7
Tankers	11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5
Key Indicators	18
Issue & Trend	20
Contact Details	21x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I . NEWS

### 1. 연준 인사들, 국채 금리 급등에 `기준 금리 동결`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최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향후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9 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이날 미 댈러스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회의 연설에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지만 최근 미 국채 수익률 상승이 경제에 잠재적인 추가 제약이 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퍼슨 부의장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추가적인 통화정책의 범위를 주의 깊게 평가하고자 하는 상태에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금융 여건의 긴축 상황을 인식하고 또한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평가하는 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5% 선에 다가가며 급등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같은 회의에서 최근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로건 총재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기간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기간 금리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경제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추가 긴축 통화 정책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면서 "다만 기여 정도와 지속성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 강한 경제 때문일 경우에는 추가 긴축을 할 수도 있다고 로건 총재는 강조했다.

이들의 이러한 발언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지난 5 일 "지난 90 일간 상당히 긴축적이었던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면 추가 조처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라고 언급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더 높은 기준금리를 더 오래'(HIGHER FOR LONGER) 유지하겠다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메시지에 시장이 지속해 반응하면서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 5%를 넘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I . NEWS

이와 관련해 BNP 파riba의 엘레나 솔리에체바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이 갑자기 연준을 대신해 모든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일부 매파(통화 긴축 선호)를 포함한 대다수 연준 내 인사들이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 신중한 진행에 동의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마이클 바 연준 감독 담당 부의장은 미 노동통계국의 고용 상황 보고서에서 9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문가의 예상보다 두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의미를 축소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낮아진 임금인상률을 거론하면서 "노동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개선됐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면서 "이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2. '高단가 물량생산 본격화' 9월 선박수출액 15% 신장

우리나라의 선박 수출이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와 건조 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9월 선박 수출액은 전년 11억 8200만 달러 대비 15.4% 신장한 13억 6400만 달러(약 1조 8000억원)를 달성했다.

건조 단가가 높았던 2021년도 수주물량 생산이 본격화된 데다 글로벌 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액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대형컨테이너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의 선가 상승은 이들 선종에서 건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 긍정적이다.

올해 8월 말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전년 대비 7% 오른 173.56 포인트를 기록했다. 전월 172.38 포인트와 비교하면 1% 상승했다.

선종별 선가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 조선의 주력 선종인 17만 4000M<sup>3</sup>급 LNG 운반선은 전년 대비 11% 상승한 2억 6200만 달러를 기록, 전 선형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만 2000~2만 4000TEU 급 컨테이너선 역시 6% 오른 2억 2500만 달러로 나타났다.

## I . NEWS

### 9 월 총수출 4% ↓ ...12 개월째 감소세

9 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효자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한 9 개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이며 12 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다만, 지난해 10 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2 개월 연속 한 자릿수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547 억달러(약 74 조 2000 억원)였다. 반면, 무역 수지는 37 억달러로, 4 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5 개 주요 품목 중에서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철강, 디스플레이, 가전 등 6 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단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13.6% 감소한 99 억 4000 만달러에 그쳤다.

다만, 메모리 기업들의 감산 확대에 따른 수급 개선과 IT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및 인공지능(AI) 서버용 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출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액 3 위와 5 위 품목인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은 수출 물량 감소와 수출 단가 하락세, 기저 등으로 각각 6.1% 6.8% 떨어진 38 억 2000 만달러, 49 억달러에 그쳤다.

차부품은 추석 연휴에 따른 국내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3.5% 후퇴한 19 억 4000 만달러, 이차전지는 미국 내 공장 증설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16.3% 감소한 7 억 9000 만달러, 무선통신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전반의 수요 둔화로 3.1% 줄어든 16 억 2000 만달러에 각각 머물렀다.

이 밖에 섬유와 컴퓨터, 바이오헬스도 각각 8.4% 53.9% 15.0% 감소한 8 억 8000 만달러 6 억 5000 만달러 11 억 2000 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2 위인 자동차는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다 아세안 인도 등 현지 특화모델 출시를 통한 전략시장 공략으로 9.5% 증가한 52 억 3000 만달러를 거두며 15 개월 연속 증가했다.

일반기계는 현지 생산공장 신설 등 신규 수요가 확대되며 9.8% 신장한 43 억 9000 만달러, 디스플레이는 LCD 중 일부 품목의 가격 반등과 출하량 증가에 4.2% 증가한 18 억 1000 만달러를 각각 거뒀다. 이 밖에 철강과 가전은 각각 6.9% 8.5% 증가한 28 억 7000 만달러 7 억 2000 만달러를 달성했다.

## I . NEWS

수입액은 전년 대비 16.5% 감소한 509 억 6000 만달러(약 69 조 1000 억원)였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유, 가스, 석탄 등 3 대 에너지 수입은 36% 급감한 113 억 1000 만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를 제외한 수입은 반도체, 철강제품, 반도체장비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15.3% 줄어든 403 억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이차전지 생산에 필수 원료인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은 수입은 각각 28% 10% 급증했다.

### 對중국 수출액 18% 급감

8 대 주요 지역 수출은 중국 중동 일본 아세안(동남아시아)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의 주요 품목이 부진하면서 17.6% 급감한 110 억달러를 기록했다.

아세안은 무선통신기기와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등이 하락세를 보이며 8.0% 감소한 94 억 1000 만달러, 중동은 자동차, 일반기계, 바이오헬스 등의 부진으로 2.2% 줄어든 13 억 8000 만달러에 그쳤다.

이 밖에 일본도 철강과 일반기계, 바이오헬스 등의 품목이 부진하면서 2.5% 후퇴한 25 억 2000 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은 자동차와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등 품목의 수요가 높아지며 8.5% 증가한 100 억 4000 만달러, 유럽연합(EU)은 자동차, 철강, 가전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며 6.5% 증가한 57 억 6000 만달러를 일궜다.

이 밖에 중남미는 일반기계, 철강, 자동차부품 등의 호조로 18.2% 급증한 24 억달러, 인도는 철강,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 수출 증가로 0.8% 신장한 16 억 3000 만달러를 각각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이 세계적 고금리 기조, 중국의 경기 둔화, 공급망 재편 등 여전히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개선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4 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2022 년 10 월 이후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과 반도체 수출 최대 실적, 올해 최고 수준의 대중국 수출 등 우리 수출이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주무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출 반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수출 유관부처·지원기관·경제단체·업종별 단체 등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I . NEWS

### 3. “값싼 러시아산 막히니 호주산” 한국, 가스값 쓰나미 우려

글로벌 에너지 시장 구도가 급변하면서 일본·중국에 이어 세계 3 위 LNG(액화천연가스) 수입국인 한국도 긴장 속에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 역시 LNG 가격 변동에 민감한 에너지업계를 포함해 원자재 비중이 높은 업종 등을 중심으로 ‘가스값 쓰나미’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10 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1 월부터 8 월까지 한국의 누적 LNG 수입량과 수입금액은 각각 2917 만 T, 257 억 달러(약 34 조 7000 억원)에 달한다.

올해 수입량과 수입금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2 년(4639 만 T, 500 억 2000 만 달러) 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1 년도 연간 수입액인 254 억 5000 만 달러는 이미 넘어섰다.

이같은 LNG 수입액 급등세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에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LNG 현물 가격이 치솟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하반기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과 글로벌 경기 불황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반등했다. 여기에 지난달 호주 LNG 플랜트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직업 안정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LNG 가격이 폭등하고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LNG 수입의 약 80%를 담당하는 한국가스공사는 LNG 의 4 분의 3 가량을 장기계약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동적으로 현물시장 등에서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구매 구조는 특히 가격 급등기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공급망 악화로 값싼 러시아산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LNG 수입처에 대한 선택지가 줄어든 점도 장기적인 가격 협상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일례로 지난 2022 년과 올해 1 월부터 8 월까지 러시아산 LNG 연간 수입량은 각각 196 만 T과 95 만 T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점을 찍었던 2021 년(287 만 T) 이후 수입량 감소세가 뚜렷하다.

반면 호주산 LNG 에 대한 의존도는 한층 높아졌다. 2021 년과 2022 년의 호주산 수입량은 각각 947 만 T과 1165 만 T로, 이 기간 동안 수입금액은 58 억 달러에서 150 억 달러로 늘어났다. 수입량은 20% 정도가 증가한 반면 수입금액은 2.5 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부담이 커졌다.

## I . NEWS

---

국내 에너지 수급 여건도 불안하다. 한국의 LNG 발전 비중은 2012년 25%에서 2021년 3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LNG 발전 비중은 23%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가동률 증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LNG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LNG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국내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생산비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연구원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에 따르면 러-우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상반기 국내 제조업 가운데 수입재 비중이 큰 석유정제와 화학 업종 등의 생산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정제와 화학 업종의 생산비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5%, 10.5%로, 9개 제조업 가운데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90% 안팎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에너지 수급 악화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생산 위축 가능성 등 다방면으로 리스크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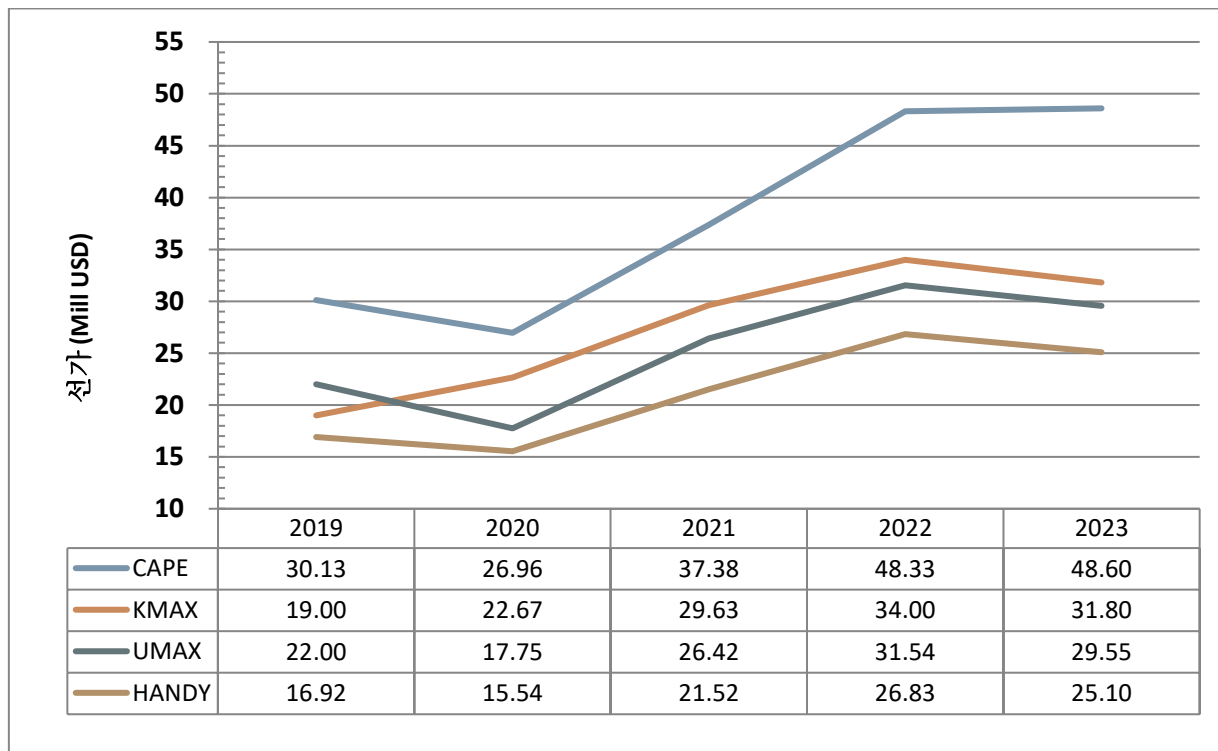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연평균 선가	2019	2020	2021	2022	2023
<b>Capesize 180K</b> <small>*Eco-design based since 2021</small>	30.13	26.96	37.38	48.33	48.60
	-14.34%	-10.51%	38.64%	--	0.55%
<b>Kamsarmax 82K</b> <small>*76k before 2020</small>	19.00	22.67	29.63	34.00	31.80
	0.42%	19.30%	30.70%	14.75%	-6.47%
<b>Ultramax 60-61K</b>	22.00	17.75	26.42	31.54	29.55
	--	-19.32%	48.83%	19.40%	-6.31%
<b>SMAX 58K</b> <small>*Data available before 2021</small>	17.17	15.92	--	--	--
	-4.20%	-7.28%	--	--	--
<b>Handysize 37K</b>	16.92	15.54	21.52	26.83	25.10
	12.18%	-8.13%	38.47%	24.69%	-6.46%

### □ BC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 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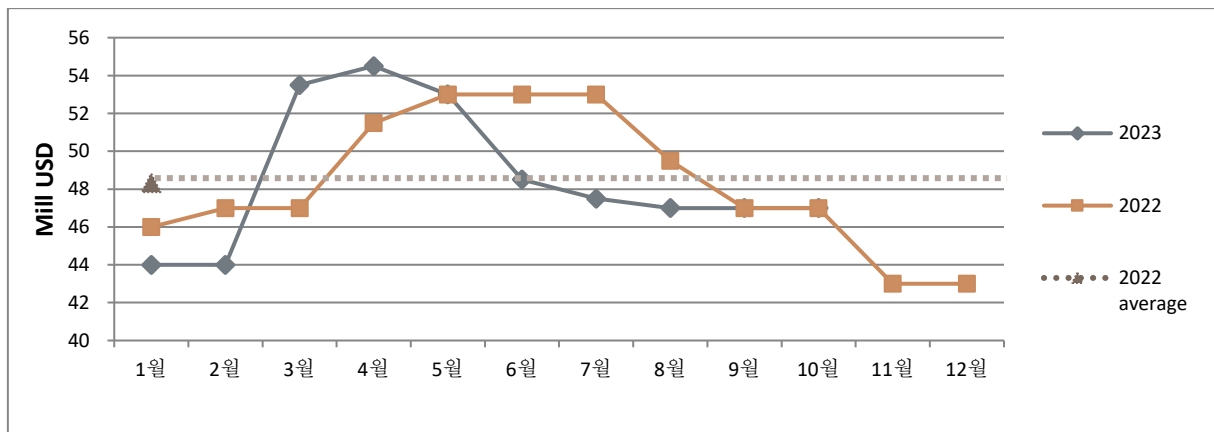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평균
CAPE (180K, Eco.)	선가	44.00	44.00	53.50	54.50	53.00	48.50	47.50	47.00	47.00	47.00	48.60
	전월대비	2.3%	0.0%	21.6%	1.9%	-2.8%	-8.5%	-2.1%	-1.1%	0.0%	0.0%	--
	전년대비	-4.3%	-6.4%	13.8%	5.8%	0.0%	-8.5%	-10.4%	-5.1%	0.0%	0.0%	0.6%
KMAX (82K)	선가	30.00	30.00	32.50	34.00	33.00	31.50	31.50	31.50	32.00	32.00	31.80
	전월대비	0.0%	0.0%	8.3%	4.6%	-2.9%	-4.5%	0.0%	0.0%	1.6%	0.0%	--
	전년대비	-11.8%	-13.0%	-8.5%	-6.8%	-13.2%	-17.1%	-12.5%	-4.5%	3.2%	3.2%	-6.5%
UMAX (60-61K)	선가	28.50	28.50	31.50	32.00	31.00	29.50	29.50	28.00	28.50	28.50	29.55
	전월대비	1.8%	0.0%	10.5%	1.6%	-3.1%	-4.8%	0.0%	-5.1%	1.8%	0.0%	--
	전년대비	-6.6%	-12.3%	-4.5%	-5.9%	-8.8%	-14.5%	-10.6%	-11.1%	-5.0%	-5.0%	-6.3%
HANDY (37K)	선가	24.50	24.50	26.00	26.50	26.00	25.00	24.50	24.00	25.00	25.00	25.10
	전월대비	4.3%	0.0%	6.1%	1.9%	-1.9%	-3.8%	-2.0%	-2.0%	4.2%	0.0%	--
	전년대비	-10.9%	-12.5%	-7.1%	-7.0%	-8.8%	-12.3%	-14.0%	-11.1%	-3.8%	2.0%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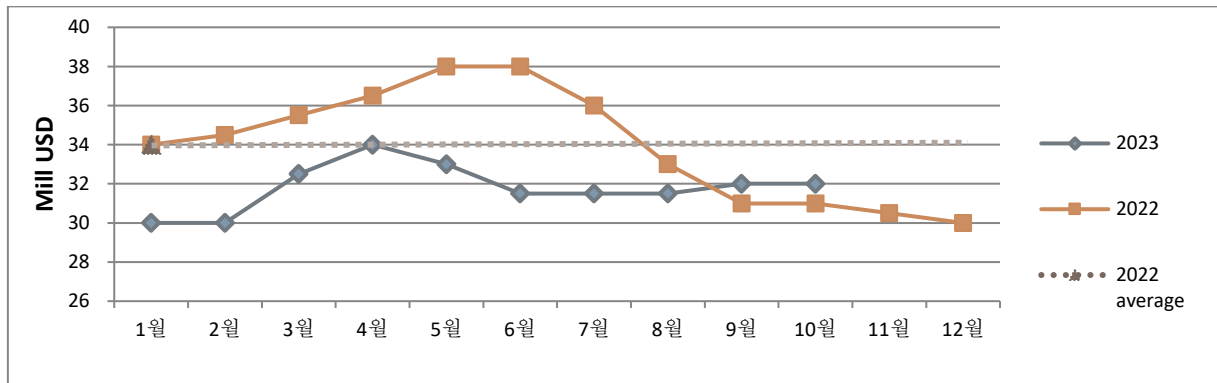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평균
CAPE (180K, Eco.)		46.00	47.00	47.00	51.50	53.00	53.00	53.00	49.50	47.00	47.00	48.33
KMAX (82K)		34.00	34.50	35.50	36.50	38.00	38.00	36.00	33.00	31.00	31.00	34.00
SMAX (58K)		30.50	32.50	33.00	34.00	34.00	34.50	33.00	31.50	30.00	30.00	31.54
HANDY (37K)		27.50	28.00	28.00	28.50	28.50	28.50	28.50	27.00	26.00	24.50	26.83

###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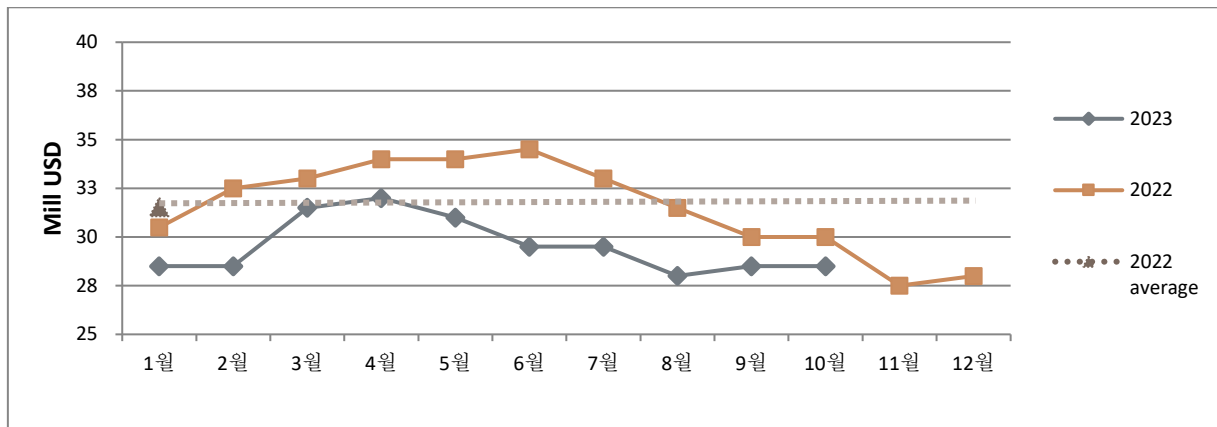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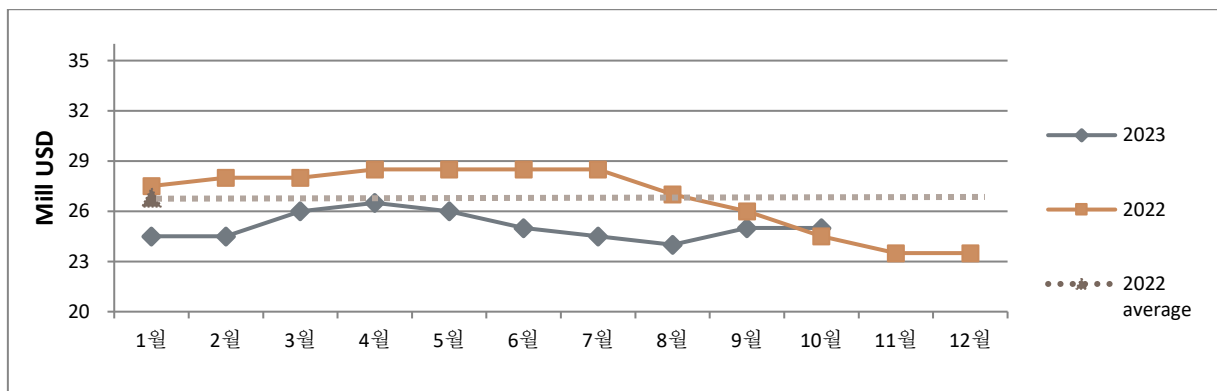
### □ Kamsarmax



### □ Ultramax & Supramax



### □ Handy



## II . BULK CARRIER

###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MINERAL SHOUGANG INTERNATIONAL	180,171	2009	CHINA	B&W		23	Undisclosed buyer, scrubber fitted
BC	AM GIJON	178,462	2011	JAPAN	B&W		25.75	Greek buyer (Alberta Shipmanagement)
BC	BOSTON	177,827	2007	CHINA	B&W		18.2	Undisclosed buyer
BC	CAPE STAR	175,366	2010	CHINA	B&W		21.5	Chinese buyer
BC	LORD STAR	82,830	2013	JAPAN	B&W		23.8	German buyer (BLUMENTHAL), scrubber fitted
BC	KUNO OLDENDORFF	82,206	2022	CHINA	B&W		32.5	Greek buyer, eco
BC	AOM GEORGINA	82,146	2014	PHILIPPINES (JAP)	B&W		24.8	Indian buyer (GESCO)
BC	HONWIN	57,334	2009	KOREA	B&W	C 4x30t	15	Vietnamese buyer (Petro Vietnam)
BC	OCEAN GLORY	56,039	2006	JAPAN	B&W	C 4x30t	11	Undisclosed buyer
BC	RHL CLARITA	53,828	2008	CHINA	B&W	C 4x36t	9.5	Undisclosed buyer
BC	STAR ZETA	52,994	2003	JAPAN	B&W	C 4x30t	8	Hong Kong buyer
BC	JAG ROHAN	52,450	2006	PHILIPPINES (JAP)	B&W	C 4x30t	9.25	Chinese buyer
BC	ZAID	37,349	2015	CHINA	WART	C 4x30t	--	Russian buyer (Salmi)
BC	LENI SELMER	33,737	2011	CHINA	B&W	C 4x35t	11.55	Undisclosed buyer, log fitted
BC	21 LUCKY	29,756	2001	JAPAN	B&W	C 4x30t	5.5	Undisclosed buyer
BC	PORT KENNY	28,449	2004	JAPAN	B&W	C 4x30.5t	7	Undisclosed buyer
BC	SAGITTA	13,450	2008	CHINA	B&W	C 2x35t	8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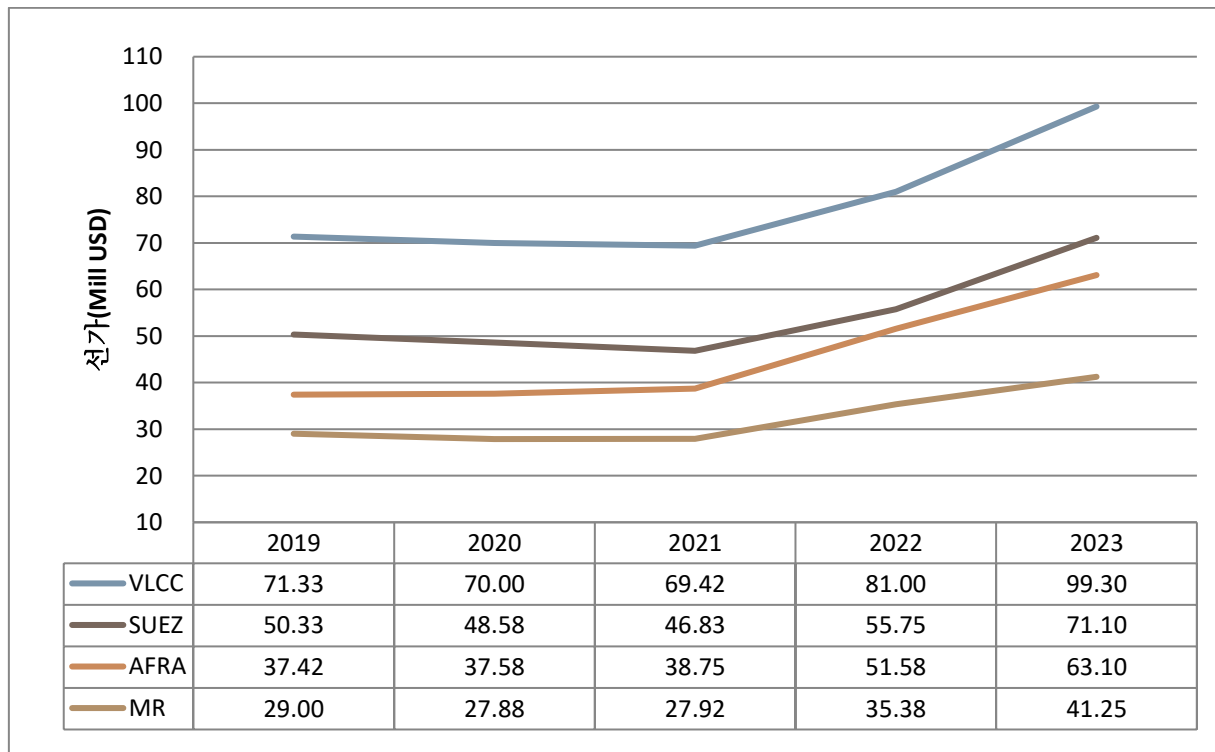
###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VLCC (310K)	71.33	70.00	69.42	81.00	99.30
	10.73%	-1.87%	-0.83%	16.69%	22.59%
Suezmax (160K)	50.33	48.58	46.83	55.75	71.10
	15.60%	-3.48%	-3.60%	19.04%	27.53%
Aframax (105K)	37.42	37.58	38.75	51.58	63.10
	17.85%	0.45%	3.10%	33.12%	22.33%
MR (51K) <small>*Based on 49K till 2018</small>	29.00	27.88	27.92	35.38	41.25
	9.43%	-3.88%	-0.15%	26.72%	16.61%

#### □ TANKER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 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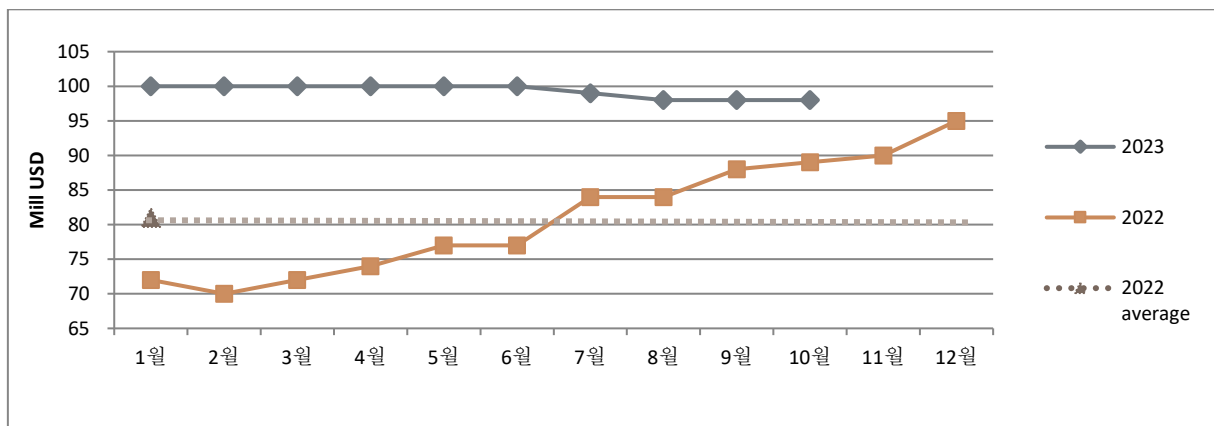




## III. TANKER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평균
VLCC 310K	선가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9.00	98.00	98.00	98.00	99.30
	전월대비	5.3%	0.0%	0.0%	0.0%	0.0%	0.0%	-1.0%	-1.0%	0.0%	0.0%	-
	전년대비	38.9%	42.9%	38.9%	35.1%	29.9%	29.9%	17.9%	16.7%	11.4%	10.1%	22.6%
SUEZ 160K	선가	68.00	68.00	68.50	68.50	74.00	73.00	72.00	73.00	73.00	73.00	71.10
	전월대비	4.6%	0.0%	0.7%	0.0%	8.0%	-1.4%	-1.4%	1.4%	0.0%	0.0%	-
	전년대비	41.7%	44.7%	39.8%	34.3%	42.3%	35.2%	24.1%	23.7%	17.7%	17.7%	27.5%
AFRA 105K	선가	62.50	62.50	62.50	62.50	63.50	63.50	63.50	63.50	63.50	63.50	63.10
	전월대비	4.2%	0.0%	0.0%	0.0%	1.6%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38.9%	38.9%	38.9%	33.0%	29.6%	29.6%	19.8%	17.6%	11.4%	11.4%	22.3%
MR 51K	선가	41.50	41.50	41.50	42.00	42.00	41.00	40.00	40.00	41.50	41.50	41.25
	전월대비	3.8%	0.0%	0.0%	1.2%	0.0%	-2.4%	-2.4%	0.0%	3.8%	0.0%	-
	전년대비	38.3%	38.3%	43.1%	29.2%	25.4%	22.4%	8.1%	0.0%	3.8%	6.4%	16.6%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year 평균	
VLCC	72.00	70.00	72.00	74.00	77.00	77.00	84.00	84.00	88.00	89.00	81.00	
SUEZ	48.00	47.00	49.00	51.00	52.00	54.00	58.00	59.00	62.00	62.00	55.75	
AFRA	45.00	45.00	45.00	47.00	49.00	49.00	53.00	54.00	57.00	57.00	51.58	
MR	30.00	30.00	29.00	32.50	33.50	33.50	37.00	40.00	40.00	39.00	3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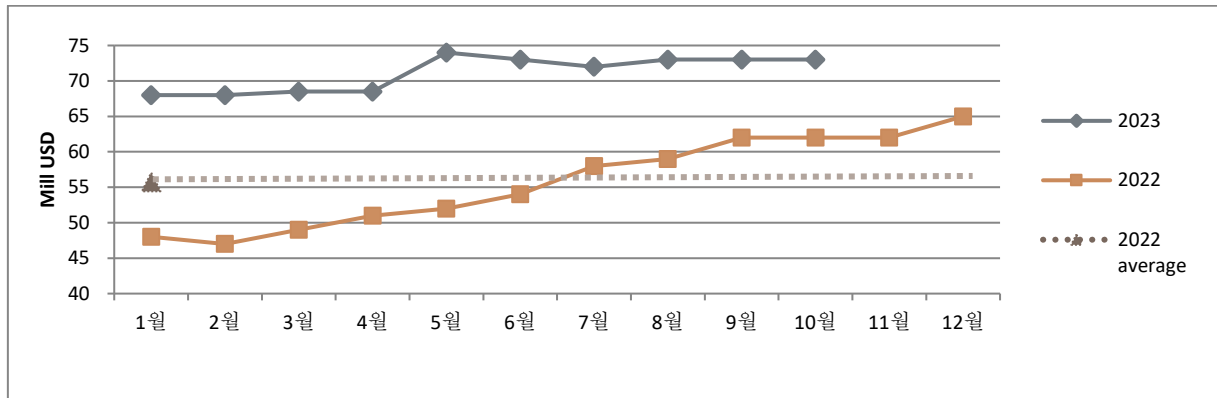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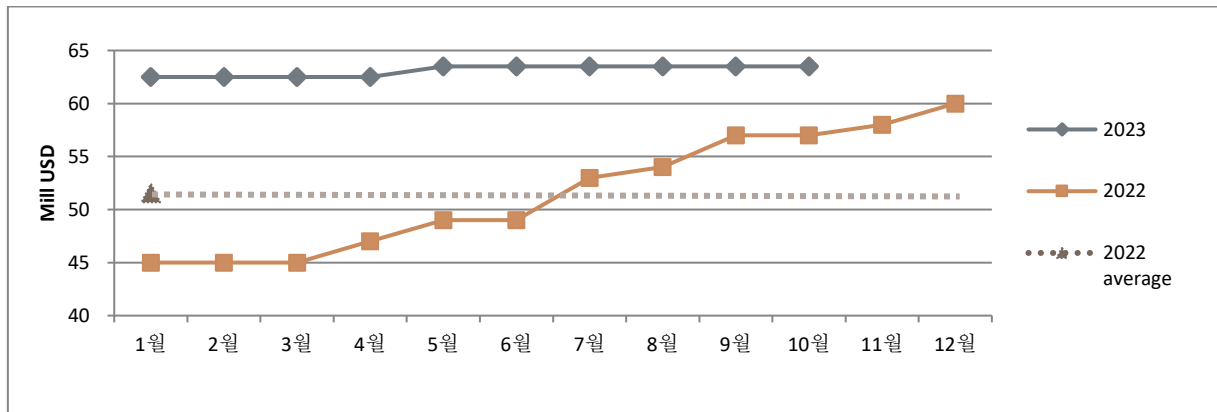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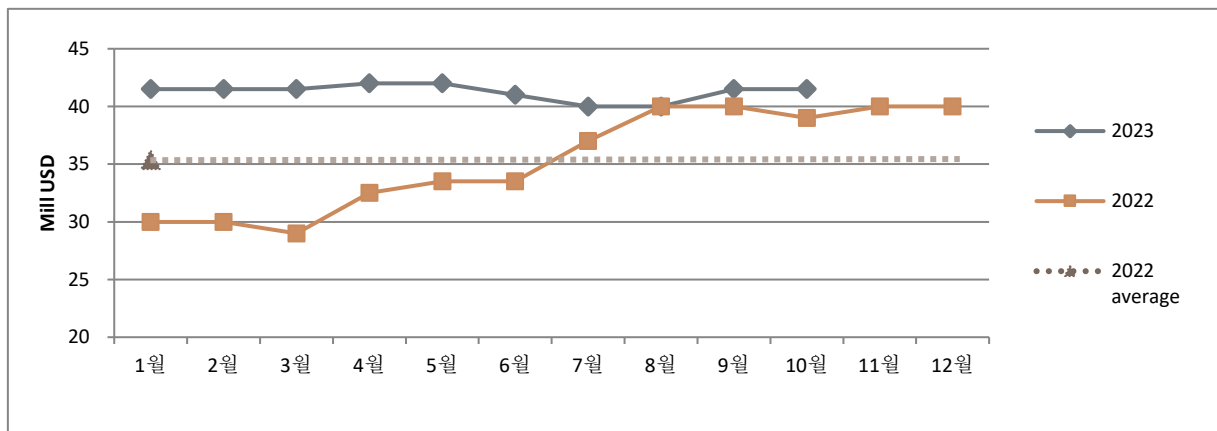
#### □ SUEZMAX-160K



#### □ AFRAMAX-105K



#### □ MR-51K



### III. TANKER

#### Tank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SANDPIPER PACIFIC	51,833	2013	KOREA	B&W		34	Undisclosed buyer
TANKER	CHEMTRANS AEGEAN	76,578	2007	CHINA	B&W		22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TANKER	CONSTANCE	50,129	2008	KOREA	B&W	2&3	22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TANKER	EVINOS	49,997	2013	KOREA	B&W	2	33.7	Greek buyer (R Shipping), epoxy coated
TANKER	TRF BERGEN	49,126	2015	VIETNAM (KOR)	B&W	2&3	36	Singaporean buyer (Hafnia), scrubber fitted
OIL/CHEM	LACERTA	49,996	2016	KOREA	B&W		40	Turkish buyer, eco, epoxy coated
OIL/CHEM	BORA BORA	49,994	2016	KOREA	B&W		40	
CHEMICAL	MTM HONG KONG	30,350	2000	JAPAN	MITSU	2&3	12	Undisclosed buyer, stst

####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NORTHERN MAGNITUDE	85,810	2003	KOREA	B&W	6732	TEU	17	Swiss buyer (MSC)
CONT	OAKLAND	66,781	2000	KOREA	B&W	4843	TEU	11.9	Hong Kong buyer (Safetrans)
CONT	MSC REN V	57,240	2002	KOREA	SULZER	4515	TEU	18.5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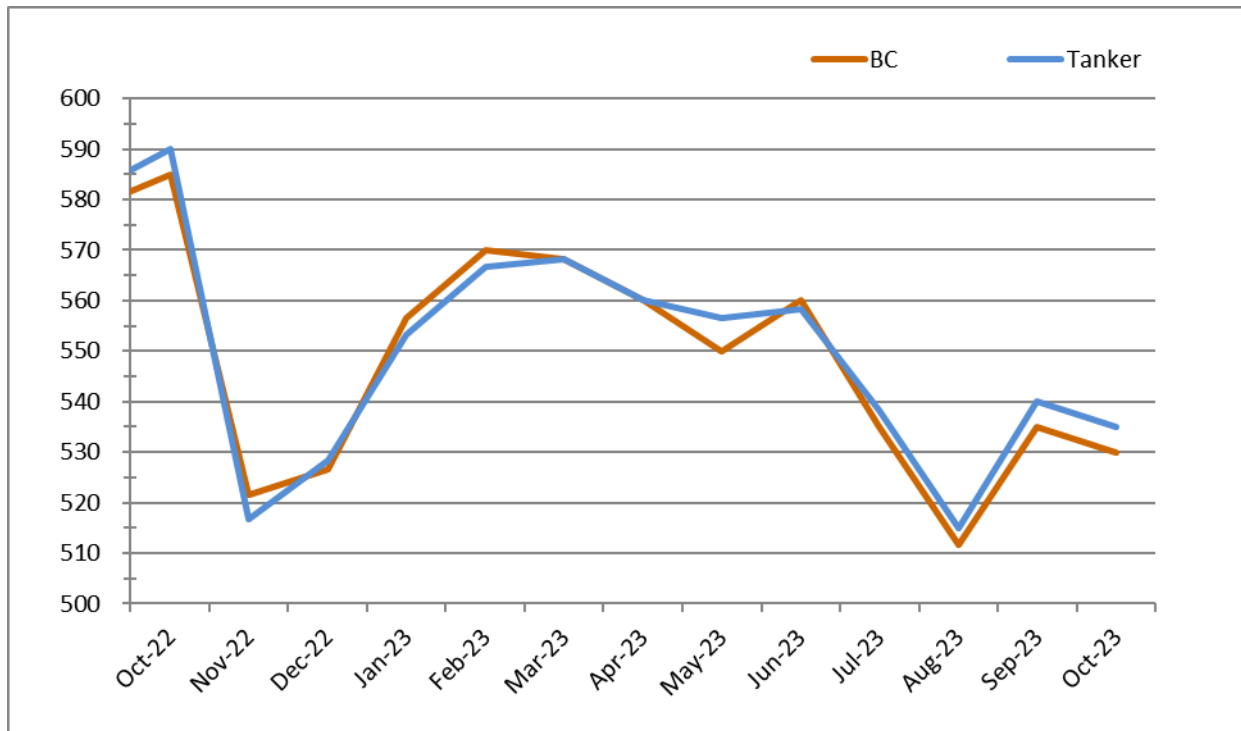


## IV. DEMOLITION

### 1) 해체선가

	2021 Average		2022 Average		2023 Average		2022.10	2023.10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USD/LDT	MoM	YoY
TANKER	526.81	52.9%	590.28	12.0%	549.17	-7.0%	590.00	535.00	-0.9%	-9.3%
BC	529.17	53.6%	588.56	70.8%	547.67	-6.9%	585.00	530.00	-0.9%	-9.4%

❖ 기준 : 인도 해체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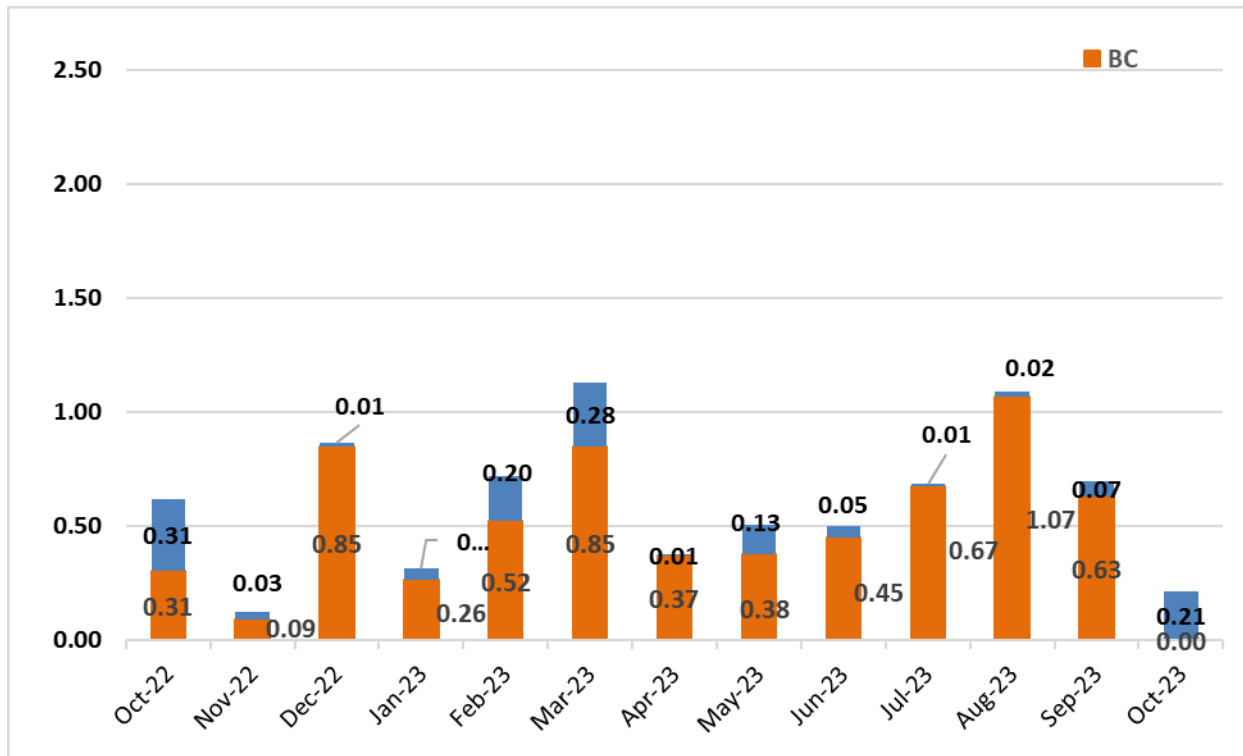
## IV. DEMOLITION

### 2) 해체선 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21		2022		2022.10		2023.10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YoY	No. of Vessel	YoY
TANKER	15.66	315	6.50	134	0.31	4	0.21	-32.1%	5	25.0%
*BC	6.34	123	4.48	63	0.31	6	0.00	-99.3%	14	133.3%

\*BC incl. General cargo vessel

###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 IV. DEMOLITION

---

###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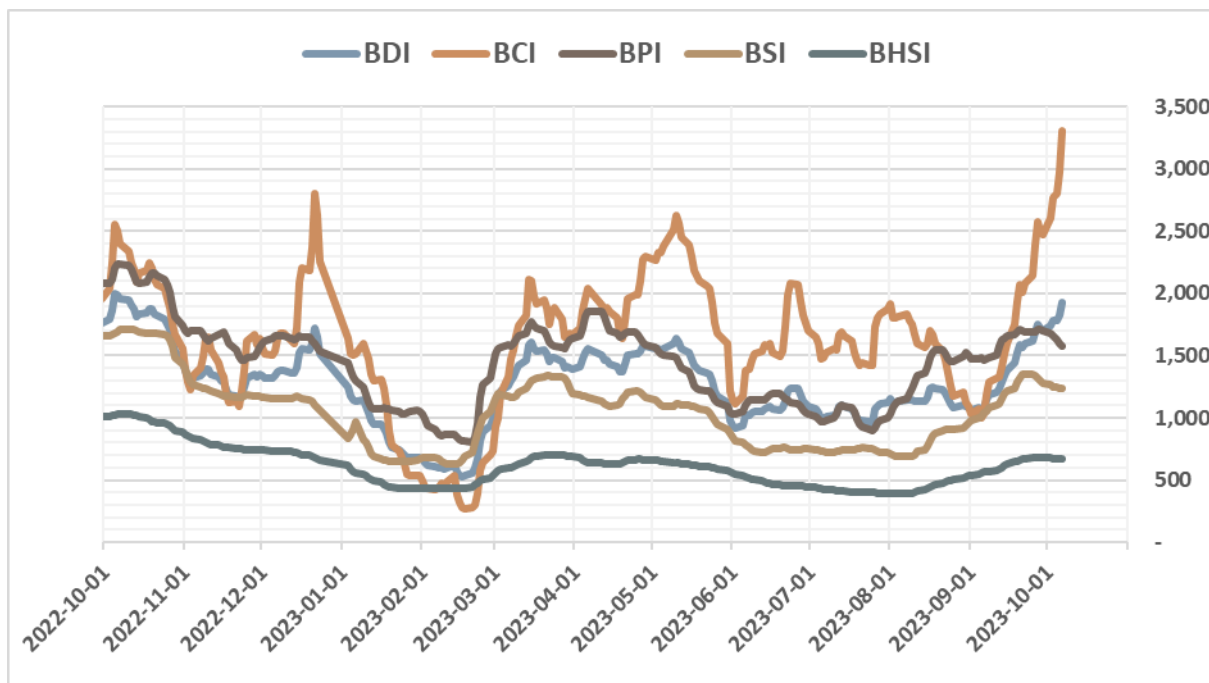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CONT	MSC DENISSE	41,771	13,977	1988	FRANCE	SULZ	575	INDIAN, MSC approved yards only
TANKER	ALANA	159,899	22,471	1998	KOREA	B&W	570	



## V . KEY INDICATORS

### 1) Baltic Index

	2023-10-06	2023-09-29	CHANGE	1 Year High	1 Year Low
BDI	1,929	1,701	▲228.00	2,214	530
BCI	3,309	2,474	▲835.00	3,309	271
BPI	1,572	1,701	▼129.00	2,477	809
BSI	1,233	1,276	▼43.00	2,290	625
BHSI	675	679	▼4.00	1,276	389





## V . KEY INDICATORS

### 2) Bunker Pric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VLSFO	634.50	▼48.00	594.00	▼31.50	585.50	▼74.00
MGO	848.50	▼124.50	867.00	▼117.00	872.50	▼157.50
LSMGO	848.50	▼124.50	867.00	▼117.00	-	-
IFO380	458.00	▼87.50	528.00	▼66.50	485.50	▼81.00

❖기준일 : 10 월 06 일 기준

### 3) Exchange Rate

구분	2023-10-06	2023-10-04	CHANGE
미국 USD	1349.40	1351.30	▼1.90
영국 GBP	1644.92	1631.56	▲13.36
유로 EUR	1423.21	1414.20	▲9.01
중국 CNY	184.31	184.68	▼0.37
일본 JPY (100)	909.08	906.27	▲2.81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 VI. ISSUE & TREND

---

### [시사 상식] 콜드 월렛(Cold Wallet)

◆콜드 월렛(Cold Wallet)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실물 가상자산 보관 장치를 의미한다.

오랜 기간 외부의 간섭없이 차갑게 식은 채 보관된다는 의미에서 '콜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복잡하고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콜드월렛 특성상 자산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된다.

콜드월렛 보유자들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통해 공개 키(Key)와 개인 키를 생성·보관해 해킹 위험을 막아낸다.

콜드월렛의 거래 기록은 오프라인에서 관리돼 모든 거래 기록을 추적하기 어렵고 번거로운 절차 탓에 유동성을 떨어뜨린다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비자금 조성이나 자산 은닉을 위해 콜드월렛이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

콜드월렛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핫월렛(Hot Wallet)이 있다. 핫월렛은 온라인 상태에서 거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지갑을 뜻한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



## VII. CONTACT DETAILS

STL GLOBAL CO., LTD.			
<b>Marino Hwang(황 재 웅)</b> President T. 070-7771-6400			
<b>Fleet &amp; Chartering Operation</b> biz@stlkorea.com	<b>Sancho Kim(김 현 진)</b> Managing Director T. 070-7771-6404	<b>H.S. Lee(이 현 성)</b> Director T. 070-7771-6412	
	<b>Mike Hong(홍 창 목)</b> Director T. 070-7771-6417	<b>Henry S.H. Oh(오 수 현)</b>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2	
	<b>Anna Lee(이 혜 란)</b> Manager T. 070-7771-6403	<b>Joovi Park(박 주 비)</b> Assistant Manager T. 070-7771-6419	
<b>Agency Operation</b> operation@stlkorea.com	<b>Jennifer Park(박 영 단)</b> Manager T. 070-7771-6407	<b>Hayden Son(손 호 영)</b> Assistant Manager T. 070-7771-6401	
<b>Ferroalloy Logistics &amp; Warehouse Management</b> ops@stlkorea.com	<b>Jena Ahn(안 지 영)</b>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5	<b>Joanne Jin(진 정 식)</b> Manager T. 070-7771-6406	
STL SHIPPING CO., LTD.			
<b>Sale and Purchase Broking</b> snp@stlkorea.com	<b>Neal S.I. Kwon(권 순 일)</b> President T. 070-7771-6410		
	<b>Jack Kim(김 종 수)</b> Director T. 070-7771-6411	<b>Nova Cha(차 혜 정)</b> Team member T. 070-7771-6409	
T. 02-776-0840(Rep.)   E. seoul@stlkorea.com   W. www.stlkorea.com   (04146) 101-13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STL G-TOUR		Jeonnam Yacht Academy	
기업/일반 단체 항공예약 실장 김 영 하	T. 1661-8388 T. 070-4800-0151 W. www.stlgtour.com E. tour@stlgtour.com	보트/요트 면허취득 실장 이 진 행 대리 이 정 택	T. 061-247-0331 T. 010-2777-4027 W. www.stlyacht.com E. academy@stlyacht.com